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와 강남구청이 함께하는
선한나눔운동

수거장소 사회봉사관 2층
구름다리 옆, 기부박스

참여방법 목회행정기획실 박지훈 전도사
(02-2056-5715)



광림교회 장로취임예배

충성과 겸손, 순종으로 헌신할 11명의 장로취임식 가져

5월 19일(주일) 오후 7시,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는 새롭게 기쁨 부음 받은 광림교회 장로 11명의 '장로취임예배'가 김정석 담임목사의 사회로 성도들과 예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드려졌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11명의 장로들과 예배위원들이 입장하며 시작된 장로취임예배는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최이우 목사(중교교회 원로목사)는 새롭게 세워진 장로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오늘 직분을 받는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큰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창우 장로의 성경 봉독(골 3:23-24) 후 갈릴리성가대는 '축복' 찬양으로 큰 은혜를 전했다.

이어 김영현 감독(서울연회 제17대 감독)은

언제나 식구 같은 광림교회에 오면 늘 기쁨과 감사, 설렘으로 가득하다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광림교회는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딩 처치(Leading Church)이다. 김정석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을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있다. 교회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빛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시대를 열어가는 광림교회에서 사명을 받은 11명의 장로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며, 바울의 심장을 가졌던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골로새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라. 새롭게 세워진 장로들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는 데 열심을 다 하라"고 축복하며 격려했다.

취임예배 후 조성환 목사의 사회로 '장로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이종현 장로(초등교육위원장), 백경자 장로(유아교육위원장), 박남규 장로(어린이영어예배위원장), 장재관 장로(사회

사업위원장), 박철우 장로(중등교육위원장), 박종석 장로(찬양선교위원장), 조수진 장로(유치교육위원장), 박동호 장로(남성성가단장), 박정원 장로(어와나교육위원장), 이남용 장로(나사렛성가대장), 류영열 장로(광림남교회 음악부장)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문답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과 의무에 충실하고, 교인에게 모범이 되며, 선교와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했다.

이어 안수 위원(김정석 담임목사, 김영현 감독, 박용호 감독, 최이우 목사)들은 새롭게 취임하는 장로 한 사람씩 안수를 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11명의 장로들에게 취임패를 증정하며 취임 반지를 직접 끼워주고 장로 취임을 선언했다. 취임한 장로들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축하 꽃다발과 각 기관 대표들로부터 예물과 특별찬양으로 큰 축하를 받았다.

박용호 감독(호남특별연회 초대 감독)은 "장

로로서 책임을 감당하려면 성령님께 의지하라. 담임목사를 목자 삼고, 지혜롭고 긍정적인 팀워크를 이루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유관수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직전 회장)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는다. 받은 사명을 '아멘'으로 감당하며 성도들과 은혜로운 관계성을 이루라"고 했다.

취임 장로를 대표하여 예물 봉헌과 취임 인사를 한 이남용 장로는 "11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 3면에 계속



삶의 침체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라

“그러하오나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렘 20:11)

많은 사람들은 질병 중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정신적인 절망입니다. 그러기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자기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 질병은 영원한 죽음이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절망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망은 반복됩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절망은 전염됩니다. 내가 절망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사람도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절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되고 깊은 침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예레미야는 나가서 전하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눈이 눈물로 진물이 들어 앞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절망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9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을 넘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진실이 왜곡될 때 삶이 침체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오히려 조롱합니다(8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역설, 조롱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9절) 진리가 거짓에 의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악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아 나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때 겪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자 중요한 고민입니다. 신앙 곧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πίστις)



예레미야 20:7-13

7.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곧

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1.그러하오나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입니다. 이 말은 ‘진실에 대한 확신, 믿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아이가 장작을 때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두 팔 안에 장작을 수북이 올려놓고 부엌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동네 어른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작은 체구인데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것 같구나.”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진리가 왜곡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불안감이 엄습할 때 삶이 침체됩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

성이 깨닫지 못하자 예레미야는 불안합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앗시리아를 정복하여 남하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둘로 갈라져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안의 요소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불안이 엄습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12절)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 중 어느 때에 더 멀리 볼 수 있을까? 밝은 낮에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눈앞에 있는 것들은 점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별들의 빛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

앞에 익숙한 것들을 부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안이 엄습하고 눈앞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으로 인한 삶의 침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생명력 있는 신앙이 삶의 침체를 넘어서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진리가 왜곡되어 불안하고 이로 인하여 사방의 조롱과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재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통하여 삶 속의 침체를 넘어서고,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장로 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김정석 담임목사님과 안수 위원, 기도해 주신 교역자님들과 선배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충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담임목사님을 보좌하며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11명의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안경섭 장로는(광림교회 장로회장)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로들이 되길 기도한다며 예사를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의 축도로 장로취임예배와 취임식을 은혜롭게

마쳤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서약한 11명의 장로들은 이미 맡겨진 부서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상희 기자



포토 뉴스



여선교회 에스더연합모임 <건강강좌>
5월 14일 트리니티 후 나사렛성전에서 의료선교회 민경협 집사(안과)의 건강강좌가 있었다.



평신도지도자교육 중강
평신도지도자교육 4Steps 2, 4Steps 3가 5월 19일 중강했다.



중고등부 야외예배
시험 기간으로 지친 영과 육을 회복하는 Re-member Day가 5월 25일에 열렸다.

선교주일, 복음으로 생명을 심어가다



잠비아 선교지에 기도와 관심을

광림교회는 매년 5월 중 선교주일을 정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헌금을 하고 있다. 올해는 5월 26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며 작년에 봉헌한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의 기숙사 동과 교육동 추가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에는 현재 교육동과 선교사 숙소,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으며, 40여 명의 신학생과 30여 명의 초등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앞으로 신학교는 아프리카 감리교 단과 연계해 각 지역 감리교 목회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아프리카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잠비아 광림신학교는 수도 루사카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 신학교일 뿐만 아니라 미국 웨슬리신학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교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0여 명의 학생이 매우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강의를 듣기 위해 잠비아의 각 지역에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온다. 앞으로는 잠비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오는 신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션센터는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공동 생활과 경건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숙사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잠비아의 미래 기독교 지도자를 세우고자 작년에 시작한 초등학교의 정식 인가를 위해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자 한다. 현재 미션센터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미션센터 안에 초등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기면서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시설 확충 후 유치원을 설립하여 미션센

터 설립 목적 중의 하나였던 미혼모들의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아프리카에 세워진 첫 번째 광림교회 선교지로 미래의 땅인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심어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변영혜 기자



담임목사 동정



5/14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중강

5/15 수요치유의 신학

5/19 성령강림주일

장로취임예배

5/24 STEP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

5/26 선교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여선교회성가대, 어버이주일 음악예배



2024 <어버이주일 음악예배>가 여선교회성가대 주관으로 5월 12일(주일) 오후 7시 30분부터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음악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바른 효도를 하는 만큼 아

름답고 귀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영육 간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다. 5월 가정의 달, 여선교회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길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여선교회성가대는 신상우 작곡가의 ‘사랑의 나눔’을 비롯 총 11곡의 성가곡과 앙코르 곡으로 ‘나의 어머니’(Mother of mine)를 찬양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여선교회성가대는 1983년 햇불 선교회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찬양하면서 발족되어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치유의 신학과 어버이날과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감람동산에서 갖는 합동 추모예배 때 찬양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 위문, 개척교회 봉헌 등에도 찾아가는데 동탄 성진 기공예배와 지난달 4월에 있었던 장흥교회 봉헌예배 때도 방문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었다.

지애리 권사(여선교회성가대장)는 “이번 공연에 앞서 지난해 광림교회 70주년 및 추수감사절 기념 음악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수고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 오늘 찬양은 솔리스트 독창이 없다 보니 전 대원들이 쉬는 시간 없이 온전히 서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했는데 ‘참 수고하셨어요’라고 대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성가대원들이 90여 명이지만 주로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매주 수요일 예배 시작 전 미리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을 하는데 오랜 기간 봉사해 온 분들에게는 수요 찬양이 축복의 자리요, 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음을 얘기한다. 앞으로 새로운 성가대원들이 많이 참석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입 문의 : 총무 박정옥 권사
(010-4226-3188)

이득섭 기자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에티오피아선교회 FASIKA, 기쁨의 부활절 축제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에티오피아선교회는 5월 5일(주일) 실로암에서 선교회원들이 함께 모여 에티오피아의 명절 FASIKA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FASIKA는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테와히도 정교

회와 기독교인 에티오피아에서는 FASIKA가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이며, 매년 온 가족이 모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에티오피아선교회는 행사에 앞서 5월 3일 광림수도원에서 철야 기도회를 진행하며 은혜

로운 행사를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에티오피아 고유의 전통복장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에티오피아 음식을 서로 나누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신앙의 교제를 통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성극 공연과 즐거운 게임 등을 하면서 기쁘고 유쾌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처음 FASIKA를 맞이한 수라펠 무라투씨 성도는 “그 어느 FASIKA 보다 더 축복이 넘쳤고 잊을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은혜를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수라펠 무라투씨 성도는 대장 및 복강경 수술 의

사로 11개월 동안 한국에 교환 의사로 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국내선교위원장으로 외국인제자훈련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서명관 장로는 “현재 에티오피아선교회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야비발 목사님을 주축으로 약 60명의 성도와 아이들이 매주일 모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의 특유의 음악과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 충만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후에 강남 일대에서 선교회원들과 길거리 전도를 계획하였으나, 비가 와서 전도는 다음 기회로 연기했고 은혜로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홍정기 집사(에티오피아선교회 팀장)

모이기에 힘쓰는 스테반선교회

경기도 가평에서 친교와 단합을 위한 영성 훈련 가져



5월 18일(토) 이른 아침, 광림교회 남선교회 총연합회 스테반센터 주관으로 신앙생활의 비전을 나누고 친교와 단합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스테반선교회장단과 센터 위원들이 경기도 가평 연인산 명품계곡으로 영성 훈련을 떠났다. 20여 명의 선교회장과 가족들, 남

선교회 임원들까지 교회 버스에 40명이 함께했다.

푸르른 오월의 햇살 아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믿음 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며 2시간 30분가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트레킹을 즐겼다.

맑은 물과 초록으로 물든 산들의 경치,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가평의 명물 닭갈비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찬양과 레크레이션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순서에서 스테반선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함께 참석한 1선교구 스테반 회장 김웅세 집사는 “항상 젊은 스테반에게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남선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덕분에 스테반센터를 주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날, 좋은 동역자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사

를 통해 많은 스테반 회원들과 더욱 가까워지며 두터운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는 “모이기에 힘쓰는 스테반 회장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교회의 발전과 스테반 활성화를 위해 토론하는 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임이 스테반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광림교회 스테반선교회의 비전과 다양한 활동은 네이버 밴드 <광림교회 남선교회 스테반>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이주철 집사(남선교회총연합회 스테반센터장)

청년부

강남구청, 광림교회에 감사장 수여

소외된 이웃 돕는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어 감사 전해와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마 25:40)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년 12월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금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연탄과 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1,000세대에게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불)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남구 저소득층 및 다문화 취약 계층을 포함한 소외계층 500명의 아동에게 10여 가지의 다양한 선물을 담은 사랑의 슈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우리모두친구’와 협력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 아동 200명에게, ‘한국 소아암재단’과 연계하여 소아암 및 희귀질환 아동 200명에게, 지역 교회와 공동으로 산간 지역 저소득층 아동 등 100명에게, 해외에는 튀르키예와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이들 700명에게도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국내외 소외 계층 아동에게 총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과 후원이 전달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강남구청은 광림교회가 강남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기증한 것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광림교회는 이웃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추운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기부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해주셨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강남구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라며 광림교회에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원 전도사(청년부)

샤이닝스쿨 미션데이, 열방을 품는 아이들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샤이닝스쿨에서는 매달 1회, 지정된 수요일을 미션데일로 정하고 특별히 한 나라를 골라 위치, 역사, 문화, 정치뿐 아니라 그 나라가 당면한 어려움 등을 깊이 있게 알아본 후 기도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하고 있다. 샤이닝스쿨은 아

이들이 미션데이를 통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 등 지구촌 곳곳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열방을 품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

를 지향하고 있다. 미션데이는 3달 동안 한 국가를 품고 기도하

는데 이번 미션데이의 대상은 선교활동이 금지된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이다. 지난 4월부터 다가올 6월까지 베트남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며 기도 제목을 정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샤이닝스쿨 1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이 베트남 호찌민을 직접 방문해 베트남 광림선교센터와 현지 보육원에 도움을 주고 돌아왔다.

5월 22일 사회봉사관 컨벤션A홀에서 열린 샤이닝스쿨 미션데이에는 비전트립팀을 이끌고 베트남을 다녀온 임재철 목사(교회학교)가 직접 경험한 베트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미션데이에 참석한 아이들은 베트남 지형과 문화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과 호찌민의 역사, 베트남의 종교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웠다. 또, 비전트립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이 직면한 사회 문제들도 나누었다. 아이들은

공산주의 정권이 물러나기를, 베트남 광림선교센터가 부흥하기를,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후 비전트립을 다녀온 친구들과 샤이닝스쿨 친구들은 Q&A 시간을 가졌고 베트남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임재철 목사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품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분기별로 한 나라를 정해 미션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성금도 보냈습니다. 올해는 비전트립팀 파견을 시도했으며, 앞으로도 미션데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다.

박희윤 기자

청장년부

‘사진은 핑계고’ - 온 가족 초청 잔치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2일 청장년부에서는 온 가족을 초청하여 공동체 모임을 함께하는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에는 청장년 지체들의 부모와 친지,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모차에 탄 아기부터 부모님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밝고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실에 청장년부 임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쁘고 설렌 표정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은 핑계고’ 이벤트 부스에서는 전문 사진작가를 초청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의 가족사진을 찍어서 소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마친 후에는 청장년 지체들이 준비한 깜짝 편지를 부모님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 신동협 집사의 편지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성장해 온 아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고, 최근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며, 훌륭한 여성상을 몸소 보여주신 어머니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부모님과 고모와 함께 참석한 문아름 성도는 “신앙을 물려주신 저의 영원한 속장님 조영옥 권사님”으로 편지의 글을 시작하며,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신앙 훈련에 감사를 표해, 가족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커갈수록 가혼을 더 깨닫게 된다”는 이봉호 성도와 포항에 개척 교회 목사님으로 평생을 사시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아버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편지를 올린 신상미 성도, 그리고 “장애가 있어 더 감사합니다”라는 직접 쓴 시를 낭송해 주신 김창훈 집사까지.

나누어 주신 편지에 담긴 진솔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보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면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 안에서 3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청장년부가 유일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지 등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온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참석하신 가정들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다시 한 번 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고민재 전도사(청장년부)

목회현장

감리교, 몽골 선교 30주년의 해



하나님의 선교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살롬! 몽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몽골에 한국 감리교 선교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몽골은 인구 약 320만 명, 대한민국 국토 면

적의 14배, 영하 30~40도의 추고 8개월간의 긴 겨울, 칭기즈칸의 나라, 라마불교(51.7%), 무종교(40.6%)의 나라입니다.

몽골은 현재 약 500여 개의 교회(게르(천막) 교회 포함)가 개척되었고, 약 300여 명의 현지인 목회자와 4만여 명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감리교 선교도 활발히 이루어져 28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은 18명의 몽골인 목사님들과 감리교 선교사들이 열심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故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선교 열정과 기도로 2000년 6월 게르(천막)교회로 개척되고, 본당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2004년 8월에 봉헌된 몽골 광림미션센터도 130여 명의 현지인 성도들이 교회와 지

역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가 감리교 몽골선교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지금 몽골 교회는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 경제 불황으로 인해 교회의 청장년들과 성도님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몽골 광림미션센터는 본당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청장년들과 성도님들이 지금도 꾸준히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당에서 지원해 주신 의류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와 은혜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몽골 광림미션센터는 올해부터 훈련된 청년

부와 장년부를 통하여 지역사회 전도와 어린이, 청소년 문화 사역, 방과 후 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르비트미션센터도 예배와 NGO 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몽골 광림미션센터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채욱 선교사가 정과 어등가와 선교사 가정의 영육 간에 강건하여 넉넉히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 6월 말에 있을 몽골 국회의원 선거(총 76석)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뽑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채욱 선교사(몽골 어빙게렐미션센터)

광림남교회

‘시니어 야외예배’



지난 5월 3일(금), 광림남교회 남선교회는 특별한 은혜의 모임을 가졌다. 오랫동안 광림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했던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남교회 1선교구 어르신 70여 명을 초대해 ‘시니어 야외예배’를 진행했다.

며칠째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하늘이 청명하게 빛났던 날, 하나님께서는 맑고 쾌청한 날씨를 선물해 주셨다. 야외예배의 설렘 때문인지 남교회로 모여드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볍고 신나 보였다. 목적이인 충북 제천 청풍문화재단지를 향해 달리는 버스 안에서 특별한 시니어 야외예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전도사님의 진행으로 성경 퀴즈와 게임을 하면서 준비해 간 선물도 드렸다. 지루할 틈 없이 달린 버스는 어느새 충북 제천 청풍에 도착했고, 충청북도에서 으뜸 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에서 점심 만찬을 즐겼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충주댐을 건설하며 수몰된 지역의 모든 시설물을 옮겨 놓은 곳이라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흔적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창조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동백 자이 실버 아파트에 사는 51교구 어르신 13명이 참석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남선교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셔서 더욱 용기와 힘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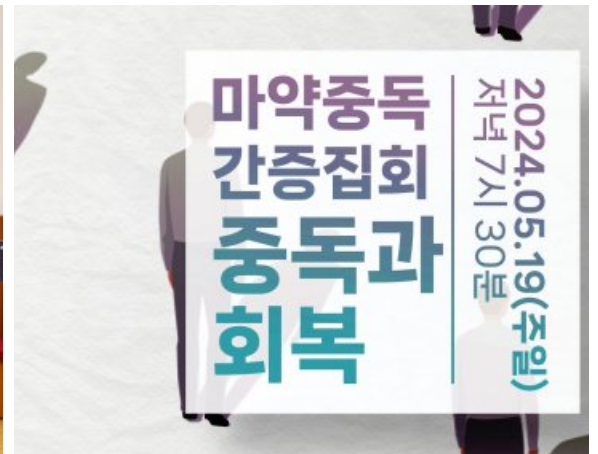
청풍나루에서 배를 타고 장화나루까지 가는 50분 남짓 시간은 이날 일정 중 최고의 코스였다. 시원한 강물을 앞뒤로 지나며 아름다운 5월의 풍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어르신, 모아서 찬양을 부르시는 어르신, 사진 찍기에 열중하신 어르신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교회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직도 시니어 야외예배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과 여운이 남아있어 주일날 그분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가을에는 남교회 2선교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니어 야외예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신대연 권사(광림남교회 남선교회연합회장)

광림북교회

어두운 이 땅을 고치소서



“더 이상 마약의 문제는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다.”

지난 주일(5월 19일) 저녁 광림북교회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이윤열 성도를 초청하여, ‘마약 중독 사례 간증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는 2019년 기준 이미 2만 명의 마약사범을 넘어 가파른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인구 5천만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 0.04%에 불과한 수치지만, 전문가들은 적발된 숫자에서 ‘30’을 곱하여, 현재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제 인원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60만 명 정도가 마약을 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 지수가 ‘20’을 넘으면 이미 그 사회는 마약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마약 지수 ‘2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치료 병원, 일선의 의사들은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조심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과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마약 중독에 빠진 이들을 돕는 기독교 공동체에 찾아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마약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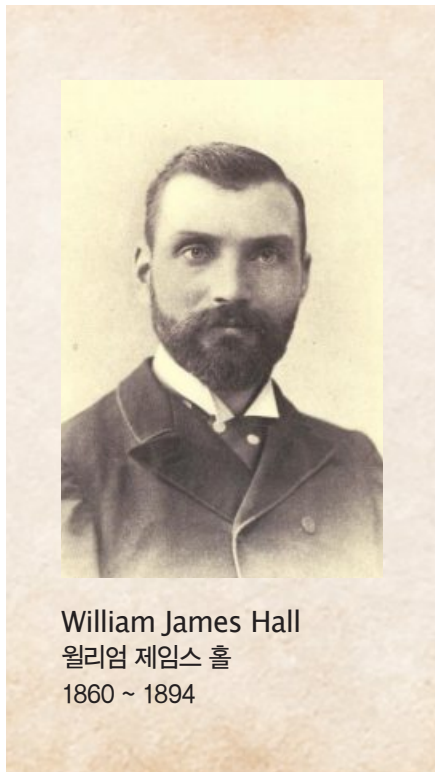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기독교 공동체에선 ‘마약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반드시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독에서 회복되는 분들의 사례는 마약 대신 더 좋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경험한 분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례 간증 집회를 통해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림북교회는 어두운 이 땅이 성령으로 회복되길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22**

홀 가족의 이야기 - 평양 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제임스 홀



William James Hall
윌리엄 제임스 홀
1860 ~ 1894

홀(Hall) 가족의 선교 이야기는 초기 한국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부 선교사인 제임스 홀과 로제타 서우드 홀은 의료 선교를 통해 평양 개척과 복음화에 힘썼으며, 한국의 의료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아들 서우드 홀은 폐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씰(christmas seal)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홀 일가의 신앙과 헌신, 대를 이은 한국 사랑과 선교 활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6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목공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폐병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학비를 벌며 퀸즈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선교를 위한 학생 운동 단체인 '학생 자원 운동'의 책임자인 존 포먼

(John Forman) 목사의 강연을 듣고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제의료선교회'에 속하여 뉴욕 빈민가 의료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뉴욕 의료시료원에서 로제타를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앞서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먼 어딘지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로제타는 1890년 조선을 선교지로 받고 떠나게 되었고, 윌리엄도 처음에는 중국 파견이 유력하였지만 1891년 극적으로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891년 12월 서울의 아펜젤러 선교사 집에서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었고, 1892년 6월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것이 조선 최초의 서양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 주재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홀로 평양 선교의 개척을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충의 괴롭힘, 천연두와 이질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은 전쟁을 잠시 피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부상한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이 열병에 걸려 서울로 이송되었지만 1894년 11월 24일 34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 로제타에게 남긴 말입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실 거예요"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너의 찬양이 기쁘다’ 유다지파 - 오영주 권사



광림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도, 유다지파에서 찬양 봉사를 하게 한 것도, 순간마다 찬양을 통해 기쁜 마음을 주신 것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오영주 권사.

찬양선교위원회(위원장 박종석 장로)라 불리는 유다지파는 악기, 싱어, 콰이어 3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 권사는 2015년 봄부터 유다지파에서 합창을 하는 콰이어로 봉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매주 4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찬양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워 주일예배가 기다려질 만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곳, 오영주 권사에게 유다지파는 삶의 엔도르핀이다.

유다지파에서 봉사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2005년 두 아들이 통로가 되어 광림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오직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의 인도로 주일예배에 오게 됐고, 아이들이 광림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던 터라 성가대에서 봉사했는데, 잠깐 쉬는 동안 우연히 4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당시 유다지파가 인원이 매우 부족했을 때인데,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보태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다지파 찬양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은?

성악을 전공했고 성가대에서 봉사도 했지만 유다지파 찬양은 조금 달라서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어요. 어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유다지파의 찬양은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 같아서 큰 은혜가 돼요'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형식과 기교보다는 찬양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실 찬양을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다지파에서의 찬양은 저에게 '은혜' 그 자체입니다. 찬양하면서 처음으로 '영주야, 사랑한다! 너의 찬양이 기쁘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부담 없이 편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성악을 공부해 남들보다는 조금 노래를 할 줄 알아서 이곳에서 쓰임 받고 있음이 그저 다행이고, 행복입니다.

유다지파를 자랑하자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유다지파는 얼마 전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콰이어는 5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 점점 봉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소리가 풍성해졌어요. 또한 어린 시절부터 봉사하던 자매들이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의 연습을 기다리던 남편들이 요즘 모여서 속회 예배도 드리고 중보기도도 나누면서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종석 장로님이 영성 훈련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친밀함과 유대감이 깊어졌어요. 유다지파에는 사랑이 가득해서 좋다고 고백하며 광림교회에 정착한 친

구도 있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지파 소속이 된 배우자들까지...

유다지파 부흥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유다지파에는 열정 부자인 정용식 목사님이 계시고요, 한결같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뜻깊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결성부터 오랫동안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김명석 장로님께도 감사드리요.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언제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앞으로의 봉사 계획은?

처음에 유다지파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빠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로 10년이 되었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유다지파를 섬기며 기쁘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콰이어 인원이 많이 늘어나 성가대석에 서서 노래할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제 삶의 엔도르핀이자 에너지의 원천인 유다지파의 찬양을 통해 부디 많은 분이 은혜 받길 원하고, 찬양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49-1



헤롯의 박해와 베드로의 탈옥 ①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음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행 12:6-9)

그 무렵 헤롯(아그립바 1세)왕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 그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 남자 아기를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왕은 유대를 평안하게 통치하기 위해 유대 사회의 지도층, 즉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재판관들, 율법 학자들의 환심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헤롯왕은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체포한 후 처형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헤롯왕을 크게 칭찬했고, 이를 알게 된 헤롯왕은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베드로는 열두 사도의 대표이자 교회의 중심인물로 그 상징성이 더욱 컸다.

베드로는 유월절 주간에 체포되었는데, 헤롯왕은 그를 유월절이 지난 후에 공개 처형할 작정이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 시절에 베드로가 성전 감옥을 탈옥한 사건을 헤롯왕에게 알려 주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베드로를 죽일 심산이었다. 이에 헤롯왕은 베드로의 탈옥을 막기 위하여 네 개조 16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그중 두 명의 병사는 베드로의 양옆에 함께 쇠사슬로 묶어 두었고, 두 명의 병사는 옥문을 지켰다. 게다가 감옥은 이중삼중의 철문으로 잠겨 있고, 곳곳에 경비병들이 감시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탈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베드로가 삼엄한 경비를 받는 동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더욱 맹렬히 기도하였다. 곧 처형 당할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다. 드디어 헤롯왕이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형할 때가



왔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잘 자고 있었다. ‘복음을 위한 순교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죽음이며 명예로운 죽음이 아닌가.’

▲ 감옥을 탈출하는 베드로_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가 로마 바티칸 박물관 엘리오도로의 방에 그린 프레스코화 작품이다.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마치 아기처럼 잘 잤다. 여전히 옥문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곁에 나타났고, 감옥에 빛이 가득했다.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며 깨우며 말했다.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나자 그의 양손에 묶인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다.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어서 띠를 띠고, 신발을 단단히 신어라. 서둘러라! 네 겹옷을 들고 여기서 나가자.” 베드로는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가면서도, 그가 정말 천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비몽사몽(非夢似夢) 지경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철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 경비병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을 막지 않았다. 이렇게 첫째 경비병을 지나고, 둘째 경비병을 지나 성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철문 앞에 이르렀다. 마지막 철문도 소리 없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를 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광림 뉴스레터

◀ 베드로를 구출하는 천사_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이다. 후안 데 발데스 레알의 작품.

